

칼럼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마이너스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전 세계인의 삶이 위축되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가는 세원 확보가 되어 세금 증수를 할 수 있다.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노·사·정은 상생의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현명한 살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이 어려울수록 정부는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정책을 줄이고 돈이 적게 드는 정책을 하고 강제 시책으로 기업을 도와야 하며, 기업은 노·사가 주인 정신으로 합심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며, 가정은 씹씹이를 잘해 집안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인상은 국내에서 최저 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근로자 측뿐 아니라 사용자 측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합리적·구체적 근거 없이 매

번 주먹구구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정해오고 있는 탓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1항은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모호하다.

이에 따라 매년 정치 또는 노사 역학관계에 따라 '눈치 게임'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도 근로자 측은 16.4% 인상, 사용자 측은 2.1% 삭감안을 내걸고 격돌했는데 그 근거는 각자 편한 대로 인용하는 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사용자·근로자 대표 9명씩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이 결정권을 행사했다.

공익위원들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 0.4%, 경제성장률 전망 0.1%'를 더해 최저임금 1.5%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따지고 보면 이 숫자들도 제멋대로다. 우선 '근로자 생계비 개

선분 1%'는 정하기 나름이다.

또 올해 성장률도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치 0.1%를 인용했는데 가장 낙관적인 숫자에 해당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2%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다.

이처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는 최저임금에 사용자 부담능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켜낼 수 있다.

한국은 2018년부터 2년 동안 최저임금을 30% 가량 인상했다.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12위 이내에 들 정도로 최저임금은 높아진 상태다. 여기서 또다시 무턱대고 인상하려고만 해서 안 될 일이다.

경제 성장률에 따라 신중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결

정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 하지만 빈부의 차가 심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며 일자리에서의 소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해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그에 따른 봉급이 인상되며 그에 따라 사용자들은 인원을 감원하여 일자리가 줄어든다.

기업이 살려면 기업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업 성장을 위해 노사가 합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기업도 성장하고 노동자도 일하는 보람을 갖게 하는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밖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면 집안에서 씹씹이를 잘해서 안에서 돈을 버는 가정경제 운영을 잘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사·정이 합심해서 현명한 대책을 세우고 집안에서도 돈을 벌고 밖에서도 돈을 버는 씹씹이를 잘하면서 위기(危機)를 도약의 기회(機會)로 알고 상생의 길을 택해야 한다.

국가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저임금에 불만스럽지만,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의 고통으로 알고 모두가 합심해서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社說

이유 있는 여야 지지율 반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발표를 보면 통합당은 창당 이래 최고치인 36.5%를 찍었다.

33.4%에 따른 민주당을 내인 3.1%포인트 차이로 따돌린 것이다.

통합당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누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된 2016년 10월 이후 무려 199주 만이다.

당시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는 10월 3주 차 때 새누리당은 29.6%를 기록해 민주당의 29.2%보다 높았으나, 4주 차 때 24.7%로 떨어져 역전(민주당 31.2%)을 허용한 이래 단 한 번도 이를 뒤집지 못했다.

4·15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지지율이 불과 4개월 만에 급락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부동산 실적이 가장 크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 법무부·검찰 갈등이 겹치며 여권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가 빠졌고 통합당이 이를 일부 흡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마디로 민심의 풍향계는 여권의 권력 독점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견제 심리 작동을 가리키고

있다.

지난 총선까지 전국단위 선거에서 네 차례 연속 패배하며 열 패감에 휩싸인 통합당이 장외투쟁을 자제하며 구태와 결별하려 애쓰는 것도 민심을 움직였을 것이다.

정차권 가운데 가장 먼저 약세 지역인 호남지역의 수해 복구에 나서고, 정부·여당보다 먼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강 초안에 5·18 정신과 기본소득을 담은 것은 돋보였다. 통합당의 중도 견인·외연 확대 노력이 결실을 보인 것이다.

민심의 경고장을 받아든 여권은 성찰과 쇄신을 요구받고 있다. 냉철한 현실인식과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지지 하락의 요인을 "경기 침체, 고용불안,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답답한 국회, 폭우 피해 등으로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이 쌓인 결과"로 진단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삶과 마음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처방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00021 (광2)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긴장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폭염이라는 재해가 기다리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 개개인이 용기를 잃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선진시민정신이 요구된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안전한 여름을 나기 위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주요 내용은 ▲온열질환 예방 위한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 지키기 ▲실외에서 사람 간 2m 거리 두기 및 가능하다면 마스크 벗기 ▲에어컨 사용 시 2시간 마다 환기 및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기 등이다.

공사장, 논·밭, 비닐하우스 등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 물을 충분히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움직인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휴식하도록 한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는 심박수, 호흡수, 체감온도를 상승시켜 신체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실외에선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게 좋다.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면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 장소를 찾아 마스크를 벗고 휴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과다한 땀 배출 등으로 인한 열경련, 열사병 등

응급상황 발생시 소금물 섭취 등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주변에 열사병이나 열사병 증상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먼저 119에 신고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 준다.

의식이 있다면 물이나 스포츠 음료를 제공하고 의식이 없다면 그늘진 곳에서 119를 기다려야 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와 현명한 대처로 우리 모두 건강하게 남은 여름을 무사히 지낼 수 있길 바란다.

한선근/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